*영어어문교육, 15*권 **1**호 **2009**년 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임병빈[*]
(공주대학교)
전영주[**]
(대전과학고등학교)

Im, Byung-Bin & Jeon, Young-joo. (2009). A survey of the English teachers' perception on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1), 299-32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level of awareness among Korean teachers of English toward Korea's new approach to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 The authors will specifically endeavor to understand the degree to which teachers are ready to implement the TEE initiative as well as what the requirements are to prepare furth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new teaching approach. A survey was conducted on 280 secondary school teachers who are teaching English in middle or high schools throughout the country.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fourteen questions covering such areas as: the awareness among Korean teachers of English toward Korea's new approach to TEE, and the support system that teachers want to implement TEE effectively. The data, which was measured with the χ^2, T-test and ANOVA, using the statistical software, SPSS 12.0, show that both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re in agreement about the necessity of TEE and that a more systematic method of teacher training is required. In most areas,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responded similarly, although the middle school teachers responded more positively than the high school teacher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EE. The main reason for its failure is the lack of time which they had to prepare for TEE. Based on the data analysis, more research should be done in order for TEE to succeed, and finally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of English teaching in Korean secondary schools.

[teaching English in English(TEE)/survey of the English teachers' perception/teacher training,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영어교사들의 인식 조사/교사 연수]

---

[*] 제 1 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2000년 3월 교육부에서는 초, 중등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수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은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기초를 둔 것으로,‘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의 도입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후 9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었는지, 정착이 되지 않았으면 왜 정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현장의 실태 파악 없이, 새로운 영어교육 정책을 계속 제시해 오고 있다. 그 사례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 11월에 ‘영어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시의 사회적, 국가적 문제점인 영어 교육의 ‘고비용 저효율’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사교육,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등 국민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막중한 투자에 비하여 그 효과적 산출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당면한 영어교육의 현실이라는 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을 강조하며 혁신적인 영어공교육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전영주, 2008b).

즉,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와 새 정부에서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이른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영어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편/영어 친화적 환경 구축)’라는 방안을 제시하여 영어교육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고조시켰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어교육 정책을 지금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지대한 관심과 열정은 영어교육 관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고무적이고 영어교육 개선의 좋은 기회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수위와 새 정부가 갑자기 과도하게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감과 긴장을 촉발시켜온 것도 사실이다(임병빈, 2008).

또한 2009년 1월 서울시 교육청은 영어 의사소통 관련 영역(듣기, 말하기, 쓰기)의 평가 비율을 내신의 50% 이상 의무 반영함과 동시에 2012년까지는 모든 학년의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일부 교사들과 사범대학 교수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긴 하였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전반적 교육 주체의 동의와 의견이 반영 된 ‘영어 공교육 혁신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5요건(손경애와 이규진, 2003) 중의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은 일방적인 하향식의 정책이라 더욱 그 성공 여부가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280명에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논의함으로써 정부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영어교육 주체 중의 중심인 전국의 영어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됨과 아울러 중등학교 영어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필요성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취지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영어를 배운다"에서 "영어를 사용한다"는 접근법으로 그 방향이 선회되어야 한다. 영어에 대해 다 배우고 난 후에 말하기, 쓰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처음부터 약간의 영어지식만으로 사용을 병행하는 것이다. 모국어 습득과 마찬가지로 외국어 학습에서도 아무리 적은 언어지식을 가지고도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언어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다. 모국어를 배우는 어린아이의 경우를 보면, 문법이나 어휘가 모자라고 발음도 서툴지만 주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현재의 언어지식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 학습의 경우도 이와 상당히 유사한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처음 단계에는 모국어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교사의 발화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점차로 스스로 발화하며 점점 더 복잡한 의사 표현까지 가능한 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Lightbown & Spada, 2006).

Krashen(1985)은 입력가설(input hypothesis)에서 학습자를 목표언어에 노출하는 것이 언어습득과 관련이 깊으며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충분히 제공하면 저절로 유창성이 나타난다고 했다. Long(1985)도 상호작용(interaction) 가설을 주장하면서, 자연스러운 외국어 사용 상황에서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 줄 때, 학습자의 목표어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외국어 수업에 있어서, 교수용어를 해당 목표어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여러 학자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Willis, 198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문영인과 이규선, 2002; 민찬규, 2008; 황종배, 2008). 하지만 고등학생에게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받게 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영어진행 수업의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는 반대의 연구결과 또한 보고된 바 있다(최윤희, 2007). 또한 양인근(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일수록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연구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연구가 주로 한 도시나 지역에 치중되어 조사되었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단일 급별의 교사만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이 비교적 균등하게 반영된 280부의 설문지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8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연구자가 영어 수업에 대한 외부 특강을 마친 후 즉각적으로 실시한 설문지와 전국의 영어교사들 중 본 연구자의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전송한 후 회신 받은 설문지 280부를 분석하였다.

2. 조사 내용

1) 인적 사항

인적 사항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소속, 성별, 연령, 급별, 근무지역, 교직경력, 최종학력, 해외연수 경험이었다.

2)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 설문 문항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설문지 문항에는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역과 개선 방안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표1 참고).

표 1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수	설문 문항 내용
TEE에 대한 인식 문항	10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필요성, 주당 시수, 영어진행 수업의 비율
		최근 영어 수업의 진행 정도, 학생들의 호응도, 영어로 진행할 때의 어려움
		영어로 진행할 때의 어려움 내용, 일선학교의 진행여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급 및 영역

TEE에 대한 개선 문항	4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의 보상,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한 효율적 방안, 교육청과 학교에서 해야 할 사항

3. 분석 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한글 SPSS 12.0 버전으로 설문지의 문항 특성에 따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그리고 집단간 효과 검증을 위해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인적 사항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의 인적 사항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설문에 응한 280명 중 급별은 중학교 145(51.8%)명, 고등학교 135(4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었다. 근무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76(27.1%)명, 대전·충청 84(30.0%)명, 광주·전라 48(17.1%)명, 경상 72(25.7%)명 네 지역을 조사하였다. 교직 경력은 5년 이하 150(53.6%)명, 6년 이상 130(46.4%)명을 조사하였다.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 분		빈 도	%
소 속	공립	216	77.1
	사립	64	22.9
성 별	남자	66	23.6
	여자	214	76.4
연 령	20대	92	32.9
	30대	106	37.9
	40대	69	24.6
	50대	13	4.6
급 별	중학교	145	51.8
	고등학교	135	48.2

근무 지역	서울·경기·인천	76	27.1
	대전·충청	84	30.0
	광주·전라	48	17.1
	경상	72	25.7
교직 경력	5년 이하	150	53.6
	6년 이상	130	46.4
최종 학력	학사	158	56.4
	석사(과정)	89	31.8
	박사(과정)	19	6.8
해외연수 경험	전혀 없다	164	58.6
	1년 미만	75	26.8
	1년-1년 6개월 미만	9	3.2
	1년 6개월-2년 미만	3	1.1
	2년 이상	7	2.5

2.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분석결과

표 3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이검정(T-test))

		N	M	SD	t	p
급	중학교	145	3.87	0.66	0.546	0.587
별	고등학교	135	3.82	0.77		
경	5년 이하	150	3.84	0.66	-0.161	0.872
력	6년 이상	130	3.85	0.78		
합	계	280	3.85	0.71		

(카이검정(ANOVA))

	N	M	SD	F	p	사후검정 (Scheffe)
근무지 서울·경기·인천	76	3.88	0.69	1.312	0.271	
근무지 대전·충청	84	3.94	0.63	1.312	0.271	
근무지 광주·전라	48	3.81	0.73	1.312	0.271	
근무지 경상	72	3.72	0.81	1.312	0.271	
합 계	280	3.85	0.7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필요성을 급별, 교직 경력별, 근무 지역별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필요성의 평균이 3.85로 나타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필요하다면 주당 몇 시간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회	1회	2회	3회	4회모두	무응답	합계	χ^2	p
급 별	중학교	빈도	0	53	57	19	13	3	145	11.310	0.046*
		%	0.0%	36.6%	39.3%	13.1%	9.0%	2.1%	51.79%		
	고등학교	빈도	2	44	65	6	17	1	135		
		%	1.5%	32.6%	48.1%	4.4%	12.6%	0.7%	48.21%		
근무지역	서울·경기·인천	빈도	0	24	39	5	7	1	76	18.715	0.227
		%	0.0%	31.6%	51.3%	6.6%	9.2%	1.3%	27.14%		
	대전·충청	빈도	1	34	26	12	10	1	84		
		%	1.2%	40.5%	31.0%	14.3%	11.9%	1.2%	30.00%		
	광주·전라	빈도	1	10	25	3	8	1	48		
		%	2.1%	20.8%	52.1%	6.3%	16.7%	2.1%	17.14%		
	경상	빈도	0	29	32	5	5	1	72		
		%	0.0%	40.3%	44.4%	6.9%	6.9%	1.4%	25.71%		
경 력	5년 이하	빈도	0	49	74	12	12	3	150	8.406	0.135
		%	0.0%	32.7%	49.3%	8.0%	8.0%	2.0%	53.57%		
	6년 이상	빈도	2	48	48	13	18	1	130		
		%	1.5%	36.9%	36.9%	10.0%	13.8%	0.8%	46.43%		
전 체		빈도	2	97	122	25	30	4	280		
		%	0.7%	34.6%	43.6%	8.9%	10.7%	1.4%	100%		

* $p < 0.05$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필요하다면 주당 몇 시간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해서 급별, 근무지역별, 경력별로 분석한 결과 급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주당 2회의 진행에 대해서 중학교(39.3%)보다 고등학교(48.1%)가 더 많은 응답율로 나타났다. 집단별 관계없이 전체적으로는 1회와 2회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은 주당 1회~2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진행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미만	20-40%	40-60%	60-80%	80-100%	100%	무응답	합계	χ^2	p
급별	중학교	빈도	0	7	46	65	25	1	1	145	6.026	0.420
		%	0.0%	4.8%	31.7%	44.8%	17.2%	0.7%	0.7%	51.79%		
	고등학교	빈도	3	9	43	55	22	3	0	135		
		%	2.2%	6.7%	31.9%	40.7%	16.3%	2.2%	0.0%	48.21%		
근무지역	서울경기인천	빈도	0	3	17	41	13	2	0	76	18.833	0.402
		%	0.0%	3.9%	22.4%	53.9%	17.1%	2.6%	0.0%	27.14%		
	대전충청	빈도	2	4	33	29	16	0	0	84		
		%	2.4%	4.8%	39.3%	34.5%	19.0%	0.0%	0.0%	30.00%		
	광주전라	빈도	1	3	14	23	6	1	0	48		
		%	2.1%	6.3%	29.2%	47.9%	12.5%	2.1%	0.0%	17.14%		
	경상	빈도	0	6	25	27	12	1	1	72		
		%	0.0%	8.3%	34.7%	37.5%	16.7%	1.4%	1.4%	25.71%		
경력	5년이하	빈도	0	5	47	75	21	2	0	150	13.202	0.040*
		%	0.0%	3.3%	31.3%	50.0%	14.0%	1.3%	0.0%	53.57%		
	6년이상	빈도	3	11	42	45	26	2	1	130		
		%	2.3%	8.5%	32.3%	34.6%	20.0%	1.5%	0.8%	46.43%		
전체		빈도	3	16	89	120	47	4	1	280		
		%	1.1%	5.7%	31.8%	42.9%	16.8%	1.4%	0.4%	100%		

* $p < 0.05$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진행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 급별과 근무지역별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력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60-80%정도의 영어진행 수업에서 5년 이하의 경력자들(50.0%)이 6년 이상의 경력자들(34.6%) 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대부분의 교사들(74.7%)은 40-80% 정도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선생님께서는 현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카이검정(T-test))

		N	M	SD	t	p
급별	중학교	144	2.92	1.12	5.921	0.000***
	고등학교	133	2.16	1.01		
경력	5년 이하	147	2.33	1.04	-3.462	0.001**
	6년 이상	130	2.80	1.18		
합 계		277	2.55	1.13		

(카이검정(ANOVA))

		N	M	SD	F	p	사후검정(Scheffe)
근무지역	서울·경기·인천	75	2.32	1.08	2.175	0.091	
	대전·충청	82	2.77	1.19			
	광주·전라	48	2.48	1.13			
	경상	72	2.60	1.10			
합 계		277	2.55	1.13			

* $p < 0.05$ ** $p < 0.01$ *** $p < 0.00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실시여부를 급별과 교직경력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별로는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더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직경력별로는 6년 이상의 교사들이 5년 이하의 교사들보다 더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지역별 차이검정 결과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대전충청>경상>광주전라>서울경기인천의 근무지역 순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할 때 학생들의 호응도는 기존의 모국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비해 더 좋은 편입니까? (카이검정(T-test))

		N	M	SD	t	p
급별	중학교	112	2.52	0.99	0.428	0.669
	고등학교	77	2.45	1.02		
경력	5년 이하	94	2.55	1.01	0.837	0.404
	6년 이상	95	2.43	0.99		
합 계		189	2.49	1.00		

(카이검정(ANOVA))

		N	M	SD	F	p	사후검정(Scheffe)
근무지역	서울·경기·인천	46	2.63	1.04	2.834	0.040*	광주·전라>경상
	대전·충청	59	2.51	0.94			
	광주·전라	27	2.81	1.08			
	경상	57	2.21	0.94			
합 계		189	2.49	1.00			

* $p < 0.05$

모국어 사용과 어사용 수업의 호응도를 분석한 결과 급별과 교직경력별로는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근무지역별로는 광주 전라의 근무지역이 경상의 근무지역보다 영어로 사용하는 호응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호응도 전체 평균은 2.49로 나타나 아직 학생들의 호응도는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이검정(T-test))

		N	M	SD	t	p
급별	중학교	141	3.96	0.65	0.924	0.356
	고등학교	132	3.89	0.75		
경력	5년 이하	146	3.95	0.67	0.642	0.522
	6년 이상	127	3.90	0.73		
합 계		273	3.93	0.70		

(카이검정(ANOVA))

		N	M	SD	F	p	사후검정 (Scheffe)
근무지역	서울·경기·인천	74	3.92	0.59	0.018	0.997	
	대전·충청	83	3.93	0.78			
	광주·전라	47	3.91	0.75			
	경상	69	3.94	0.68			
합 계		273	3.93	0.70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때의 어려움을 급별, 교직경력별, 근무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각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평균은 3.93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영어구사 능력부족	교과서 진도압박	입시위주 교육	교재연구 시간부족	교수방법 부족	무응답	합계	χ^2	p
급별	중학교	빈도	18	21	17	36	34	19	145	25.316	0.000***
		%	12.4%	14.5%	11.7%	24.8%	23.4%	13.1%	51.79%		
	고등학교	빈도	21	16	40	10	34	14	135		
		%	15.6%	11.9%	29.6%	7.4%	25.2%	10.4%	48.21%		
근무지역	서울 경기 인천	빈도	6	15	21	8	20	6	76	30.295	0.011*
		%	7.9%	19.7%	27.6%	10.5%	26.3%	7.9%	27.14%		
	대전 충청	빈도	11	7	22	16	19	9	84		
		%	13.1%	8.3%	26.2%	19.0%	22.6%	10.7%	30.00%		
	광주 전라	빈도	7	6	7	4	17	7	48		
		%	14.6%	12.5%	14.6%	8.3%	35.4%	14.6%	17.14%		
	경상	빈도	15	9	7	18	12	11	72		
		%	20.8%	12.5%	9.7%	25.0%	16.7%	15.3%	25.71%		

경 력	5년 이하	빈도	10	26	36	21	40	17	150	20.456	0.001**
		%	6.7%	17.3%	24.0%	14.0%	26.7%	11.3%	53.57%		
	6년 이상	빈도	29	11	21	25	28	16	130		
		%	22.3%	8.5%	16.2%	19.2%	21.5%	12.3%	46.43%		
전 체		빈도	39	37	57	46	68	33	280		
		%	13.9%	13.2%	20.4%	16.4%	24.3%	11.8%	100%		

* $p < 0.05$ ** $p < 0.01$ *** $p < 0.00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급별, 근무지역별, 경력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별로 살펴보면 입시위주 교육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 교사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반면 교재연구 시간 부족은 중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들과는 약간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안고 있으므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전영주, 2008b). 이에 반해, 중학교는 교사 1인당 주당 평균 시수가 고등학교(16-18시간)에 비해 20-22시간 정도로 더 많고, 수업 이외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도 중학교 교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근무지역별로 살펴보면 영어 구사능력 부족이 어렵다고 응답한 지역은 경상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과서 진도압박이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지역의 교사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사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입시위주 교육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과 대전 충청 지역의 교사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경상, 대전 충청의 지역 교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어려움을 느끼는 인식차이는 매우 상이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입시위주 교육, 교수방법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충청 지역 교사들은 교수방법 부족, 입시위주의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고, 광주 전라 지역의 교사들은 교수방법 부족이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며, 끝으로 경상지역 교사들은 교재연구 시간 부족, 영어 구사능력 부족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도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5년 이하의 교사들은 교수방법 부족, 입시위주 교육, 교과서 진도압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년 이상의 교사들은 영어 구사능력 부족, 교수방법 부족, 교재연구 시간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2000년 3월 이후 교육부에서 권장해 오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일선 학교에서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이검정(T-test))

		N	M	SD	t	p
급별	중학교	145	2.17	0.74	3.685	0.000***
	고등학교	133	1.86	0.61		
경력	5년 이하	148	1.97	0.66	3.685	0.000***
	6년 이상	130	2.08	0.73		
합계		278	2.02	0.70		

(카이검정(ANOVA))

		N	M	SD	F	p	사후검정 (Scheffe)
근무지역	서울·경기·인천	74	2.00	0.72	0.814	0.487	
	대전·충청	84	2.11	0.66			
	광주·전라	48	1.92	0.71			
	경상	72	2.01	0.70			
합계		278	2.02	0.70			

* $p < 0.05$ ** $p < 0.01$ *** $p < 0.00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일선학교에서 잘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교직경력별, 근무지역별로는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급별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이 2.02점으로 나타나 아직도 일선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1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학교 급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응답	합계	χ^2	p
급별	중학교	빈도	11	6	126	2	145	7.573	0.109
		%	7.6%	4.1%	86.9%	1.4%	51.79%		
	고등학교	빈도	3	2	128	2	135		
		%	2.2%	1.5%	94.8%	1.5%	48.21%		
근무지역	서울·경기·인천	빈도	2	1	71	2	76	16.754	0.159
		%	2.6%	1.3%	93.4%	2.6%	27.14%		
	대전·충청	빈도	5	2	77	0	84		
		%	6.0%	2.4%	91.7%	0.0%	30.00%		
	광주·전라	빈도	1	0	47	0	48		
		%	2.1%	0.0%	97.9%	0.0%	17.14%		
	경상	빈도	6	5	59	2	72		
		%	8.3%	6.9%	81.9%	2.8%	25.71%		
경력	5년 이하	빈도	5	5	137	3	150	3.138	0.535
		%	3.3%	3.3%	91.3%	2.0%	53.57%		
	6년 이상	빈도	9	3	117	1	130		
		%	6.9%	2.3%	90.0%	0.8%	46.43%		
전체		빈도	14	8	254	4	280		
		%	5.0%	2.9%	90.7%	1.4%	100%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학교 급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한 분석결과 급별, 근무지역별, 경력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90.7%)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영역의 수업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무응답	합계	χ^2	p
급별	중학교	빈도	0	16	100	30	4	145	16.474	0.002**
		%	0.0%	10.7%	66.7%	20.0%	2.7%	51.79%		
	고등학교	빈도	1	23	62	44	0	135		
		%	0.8%	17.7%	47.7%	33.8%	0.0%	48.21%		
근무지역	서울·경기·인천	빈도	0	5	57	11	3	76	25.920	0.011*
		%	0.0%	6.6%	75.0%	14.5%	3.9%	27.14%		
	대전·충청	빈도	0	13	46	25	0	84		
		%	0.0%	15.5%	54.8%	29.8%	0.0%	30.00%		
	광주·전라	빈도	0	7	27	13	1	48		
		%	0.0%	14.6%	56.3%	27.1%	2.1%	17.14%		
	경상	빈도	1	14	32	25	0	72		
		%	1.4%	19.4%	44.4%	34.7%	0.0%	25.71%		
경력	5년 이하	빈도	0	16	100	30	4	150	16.474	0.002**
		%	0.0%	10.7%	66.7%	20.0%	2.7%	53.57%		
	6년 이상	빈도	1	23	62	44	0	130		
		%	0.8%	17.7%	47.7%	33.8%	0.0%	46.43%		
전체		빈도	1	39	162	74	4	280		
		%	0.4%	13.9%	57.9%	26.4%	1.4%	100%		

* $p < 0.05$ ** $p < 0.01$ *** $p < 0.00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영역의 수업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급별, 근무지역별, 경력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급별로는 중학교에서는 읽기(66.7%)가 고등학교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쓰기는 고등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근무지역별로는 읽기에 대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사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쓰기에서는 경상지역과 대전 충청지역의 교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력별로는 읽기에서는 5년 이하의 경력자들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쓰기에서는 6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읽기가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서 읽기 영역 수업 진행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3.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 분석결과

표 13

타 교과에 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영어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기계발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연수 기회확대	자기계발 활동지원	경제적 지원	교원평가 가산점	시수업무 경감	전담부장 장학사	무응답	합계 (%)	χ^2	p
급별	중학교	빈도	50	9	6	5	70	1	4	145	13.983	0.030*
		%	34.5%	6.2%	4.1%	3.4%	48.3%	0.7%	2.8%	51.79		
	고등학교	빈도	56	16	2	1	56	4	0	135		
		%	41.5%	11.9%	1.5%	0.7%	41.5%	3.0%	0.0%	48.21		
근무지역	서울 경기 인천	빈도	37	3	3	4	28	1	0	76	26.626	0.086
		%	48.7%	3.9%	3.9%	5.3%	36.8%	1.3%	0.0%	27.14		
근무지역	대전 충청	빈도	33	10	0	1	38	1	1	84		
		%	39.3%	11.9%	0.0%	1.2%	45.2%	1.2%	1.2%	30.00		
	광주 전라	빈도	13	6	1	0	27	1	0	48		
		%	27.1%	12.5%	2.1%	0.0%	56.3%	2.1%	0.0%	17.14		
	경상	빈도	23	6	4	1	33	2	3	72		
		%	31.9%	8.3%	5.6%	1.4%	45.8%	2.8%	4.2%	25.71		
경력	5년 이하	빈도	59	12	3	4	66	4	2	150	3.239	0.778
		%	39.3%	8.0%	2.0%	2.7%	44.0%	2.7%	1.3%	53.57		
	6년 이상	빈도	47	13	5	2	60	1	2	130		
		%	36.2%	10.0%	3.8%	1.5%	46.2%	0.8%	1.5%	46.43		
전체		빈도	106	25	8	6	126	5	4	280		
		%	37.9%	8.9%	2.9%	2.1%	45.0%	1.8%	1.4%	100%		

* $p < 0.05$ ** $p < 0.01$ *** $p < 0.001$

‘타 교과에 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영어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기계발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 급별과

근무 지역별($p<0.1$)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력별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별로는 중학교 교사들은 교사 1인당 수업 시수 축소와 업무 경감, 해외연수 기회 확대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고, 고등학교 교사들은 해외연수 기회 확대, 시수 및 업무 경감이 같은 비율로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해외연수 기회 확대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비율이 높았고, 시수 및 업무 경감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사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 지역 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해외연수 기회 확대, 시수 및 업무 경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충청 지역의 교사들은 시수 및 업무 경감, 해외연수 기회 확대의 순으로, 광주 전라 지역의 교사들은 시수 및 업무 경감, 해외연수 기회 확대, 경상지역 교사들도 시수 및 업무 경감, 해외연수 기회 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시수 및 업무 경감, 해외연수 기획 확대의 순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원하고 있는 보상 체제에 대한 계획이 보다 정밀하게 보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장기연수	해외단기연수	국내합숙연수	국내비합숙연수	퇴근후주말	해외유학지원	기타	무응답	합계	χ^2	p
급별	중학교	빈도	92	10	6	5	3	23	2	4	145		
		%	63.4%	6.9%	4.1%	3.4%	2.1%	15.9%	1.4%	2.8%	51.79%		
	고등학교	빈도	65	8	3	9	8	39	3	0	135	17.275	0.016*
		%	48.1%	5.9%	2.2%	6.7%	5.9%	28.9%	2.2%	0.0%	48.21%		
근무지역	서울 경기 인천	빈도	37	6	3	3	3	22	1	1	76		
		%	48.7%	7.9%	3.9%	3.9%	3.9%	28.9%	1.3%	1.3%	27.14%		
	대전 충청	빈도	41	3	3	5	3	28	1	0	84		
		%	48.8%	3.6%	3.6%	6.0%	3.6%	33.3%	1.2%	0.0%	30.00%		
	광주 전라	빈도	19	4	1	4	5	12	3	0	48	60.548	0.000***
		%	39.6%	8.3%	2.1%	8.3%	10.4%	25.0%	6.3%	0.0%	17.14%		
	경상	빈도	60	5	2	2	0	0	0	3	72		
		%	83.3%	6.9%	2.8%	2.8%	0.0%	0.0%	0.0%	4.2%	25.71%		

경력	5년 이하	빈도	79	7	5	7	10	37	3	2	150	9.513	0.218
		%	52.7%	4.7%	3.3%	4.7%	6.7%	24.7%	2.0%	1.3%	53.57%		
	6년 이상	빈도	78	11	4	7	1	25	2	2	130		
		%	60.0%	8.5%	3.1%	5.4%	0.8%	19.2%	1.5%	1.5%	46.43%		
전체		빈도	157	18	9	14	11	62	5	4	280		
		%	56.1%	6.4%	3.2%	5.0%	3.9%	22.1%	1.8%	1.4%	100%		

* $p < 0.05$ ** $p < 0.01$ *** $p < 0.001$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급별, 근무지역별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력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해외 장기연수와 해외 유학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해외 장기연수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근무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외 장기연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해외 유학지원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상지역 교사들은 타 지역 교사들보다 해외 장기연수에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도 해외 장기연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해외 유학지원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시, 해외 유학이나 해외 장기연수에 대한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15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시 제도 개선	영어 국가 공용어 지정	말하기 쓰기 평가 확대	취업시 의사 소통 능력반 영	무응답	합계	χ^2	p
급별	중학교	빈도	112	6	15	2	10	145	6.933	0.226
		%	77.2%	4.1%	10.3%	1.4%	6.9%	51.79%		
	고등학교	빈도	111	7	12	3	2	135		
		%	82.2%	5.2%	8.9%	2.2%	1.5%	48.21%		

근무지역	서울경기인천	빈도	60	2	12	1	1	76	26.462	0.033*
		%	78.9%	2.6%	15.8%	1.3%	1.3%	27.14%		
	대전충청	빈도	66	8	8	1	1	84		
		%	78.6%	9.5%	9.5%	1.2%	1.2%	30.00%		
	광주전라	빈도	39	2	4	1	2	48		
		%	81.3%	4.2%	8.3%	2.1%	4.2%	17.14%		
	경상	빈도	58	1	3	2	8	72		
		%	80.6%	1.4%	4.2%	2.8%	11.1%	25.71%		
경력	5년 이하	빈도	130	4	13	1	2	150	15.215	0.009**
		%	86.7%	2.7%	8.7%	0.7%	1.3%	53.57%		
	6년 이상	빈도	93	9	14	4	10	130		
		%	71.5%	6.9%	10.8%	3.1%	7.7%	46.43%		
전체		빈도	223	13	27	5	12	280		
		%	79.6%	4.6%	9.6%	1.8%	4.3%	100%		

* $p < 0.05$ ** $p < 0.01$ *** $p < 0.00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 급별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근무 지역과 경력 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 지역 별로는 입시 제도 개선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광주 전라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말하기, 쓰기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타 지역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경력 별로도 입시 제도 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5년 이하의 경력자들이 6년 이상의 경력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이 타 방안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입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교사가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6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업 시수 축소 업무 경감	영어 전용 교실 자료 지원	신규 영어 교사 증원	영어 전용 교사 제도 도입	원어민 보조 교사 확충	무응답	합계	χ^2	p
급별	중학교	빈도	85	24	12	13	6	5	145	26.139	0.000***
		%	58.6%	16.6%	8.3%	9.0%	4.1%	3.4%	51.79%		
	고등학교	빈도	105	6	3	6	13	2	135		
		%	77.8%	4.4%	2.2%	4.4%	9.6%	1.5%	48.21%		
근무지역	서울경기인천	빈도	61	5	1	4	5	0	76	98.515	0.000***
		%	80.3%	6.6%	1.3%	5.3%	6.6%	0.0%	27.14%		
	대전충청	빈도	69	2	2	2	9	0	84		
		%	82.1%	2.4%	2.4%	2.4%	10.7%	0.0%	30.00%		
	광주전라	빈도	39	3	1	1	2	2	48		
		%	81.3%	6.3%	2.1%	2.1%	4.2%	4.2%	17.14%		
	경상	빈도	21	20	11	12	3	5	72		
		%	29.2%	27.8%	15.3%	16.7%	4.2%	6.9%	25.71%		
경력	5년 이하	빈도	115	13	9	4	8	1	150	19.400	0.004**
		%	76.7%	8.7%	6.0%	2.7%	5.3%	0.7%	53.57%		
	6년 이상	빈도	75	17	6	15	11	6	130		
		%	57.7%	13.1%	4.6%	11.5%	8.5%	4.6%	46.43%		
전체		빈도	190	30	15	19	19	7	280		
		%	67.9%	10.7%	5.4%	6.8%	6.8%	2.5%	100%		

* $p < 0.05$ ** $p < 0.01$ *** $p < 0.001$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해서 급별, 근무지역별, 경력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수 축소 및 업무 경감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지역별로도 수업 시수 축소 및 업무 경감이 가장 우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상지역의 교사들은 영어전용교실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자료 및 교수법적 지원도 타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근무 지역별로 우선 시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약간 상이한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는 5년 이하와 6년 이상의 경력자 모두 수업 시수 축소 및 업무 경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중 5년 이하의 경력자들이 6년 이상의 경력자들보다 수업 시수 축소 및 업무 경감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수업 시수 축소 및 업무 경감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교사들의 근무 부담에 대한 해소책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현장교사들이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배려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하향식의 정책 제시만 하는 것에 대해 교사가 느끼는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의견 난에 37 명의 교사가 의견을 제시함).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안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하여 영어진행 수업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점진적인 평가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실정에 맞는 문자 언어 기능을 다루는 수업에서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교사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민찬규, 2008) 이를 위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수법의 개발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교수방법 부족, 교재연구 시간 부족, 영어 구사능력 부족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영어 구사능력보다 영어의 4 기능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진행 교수방법을 현장 교사들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영주, 2008a). 이를 위해, 영어로 진행하면서도 영어의 4 기능을, 우리말 진행 수업 못지않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의 EFL 실정에 맞는 교수법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다고 본다.

넷째, 모국어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편안함을 버리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교사들이 원하는 보상은 교사 1 인당 수업 시수의 경감과 업무 경감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교사가 할 수 있도록 교재 연구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를 하지 않고서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정착은 요원할 것이라는 것을 영어 정책 입안자들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수'에 대해 살펴 보면, 많은 교사들이 기타 의견 난에'퇴근 후 손쉽게 늘 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 형태의 자율연수'를 희망했다. 이는 교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적인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며 부족한 교수 학습 요소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구성 요소로 교실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자율 연수로 명명(임병빈, 1998)한 것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방학 중이나 몇 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연수가 아니라도 가까운 곳에서 퇴근 후에 손쉽게 늘 접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 형태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원하는 교사에 한해 장기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유학 휴직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기타 의견으로 강력히 주장한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장기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수이기는 하였으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학습자의 수준이 낮아 입력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교사가 무리하게 목표어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언어습득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Auerbach, 1995). 이를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십분 활용하여 '하'수준 학급의 정원을 적게 하여 운영할 뿐 만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영어 진행 수업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표현(Learners' talk in TEE)을 교과 진도와 더불어 함께 지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의 실질적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영어교실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정부에서 국가적 과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개선된 상황이 제공될 때, 국제화 사회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기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영어 교수 학습으로서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문영인, 이규선. (2002).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TE)에 관한 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인식 조사. *영어교육연구, 14*(2), 299-324.

민찬규. (2008).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 의식 조사. *영어교육연구, 20*(2), 167-190.

서울시교육청. (2009, 1 월 21 일). *영어말하기내신 10%이상 반영*.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4389 에서 2009 년 1 월 22 일에 검색했음.

손경애, 이규진. (2003).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 30*(1), 201-234.

양인근. (2004).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실태 및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임병빈. (1998). 공식연수와 자율연수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영어교육, 53*(4), 291-316.

임병빈. (2008). *영어 공교육 강화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향*. 2008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전영주. (2008a). *영어교육 목표, 주당 시수 및 영어로 하는 수업 도입*.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서울: 크레듀.

전영주. (2008b, 4 월 28 일). 영어공교육 심포지엄 "영어 못하는 교사부터 해외연수를".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266899 에서 2008 년 4 월 30 일에 검색했음.

최윤희. (2007).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효과성 분석: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영어교육 혁신방안 공개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 ORM 2006-2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황종배. (2008). *TEE 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 설문 조사 연구*. 제 2 회 KASEE 정기 학술 대회 자료집. 서울: 새롬교육.

Auerbach, D. (1995). The politics of the ESL classroom: Issues of power in pedagogical choices. In J.Tollerfson (Ed.), *Power and inequality in language education* (pp. 9-3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 New York: Longman.

Lightbown, P. M., & Spada, N. (2006). *How languages are learned*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ong, M. (1985). Inpu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377-393). Rowley, MA: Newbury House.

Willis, J. (1981*).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Essex: Longman.

부 록

영어로 하는 영어진행수업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 기초조사 - 해당되는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1. 소 속: ___공립 ___사립
2. 성 별: ___남 ___여
3. 연 령: ___20대 ___30대 ___40대 ___50대
4. 급 별: ___중학교 ___고등학교
5. 근무지역: ___서울 경기 인천 ___대전 충청 ___광주 전라 __경상
6. 교직 경력: ___5년 이하 ___6년 이상
7. 최종 학력: ___학사 ___석사(과정) ___박사(과정)
8. 해외 연수경험: ___전혀 없다 ___1년 미만 ___1년 - 1년 6개월 미만 1년 6개월 - 2년 미만 ____2년 이상

※ 다음은‘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2.‘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필요하다면 주당 몇 시간의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주당 시수 4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①0회 ②1회 ③2회 ④3회 ⑤4회 모두

3.‘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 진행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20%미만 ②20-40% ③40-60% ④60-80% ⑤80-100% ⑥100%

4. 선생님께서는 현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5.‘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할 때 학생들의 호응도는 평소 모국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비해 더 좋은 편입니까?(※ 4번 문항에서 ④, ⑤번 응답자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6.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7.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 6번 문항에서 ④, ⑤번 응답자만)
①교사 자신의 영어구사 능력 부족 ② 교과서 진도에 대한 압박
③입시위주 교육 ④많은 잡무와 수업시수로 인한 교재연구 시간의 부족
⑤영어로 진행하면서도 주어진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방법 부족

8. 2000년 3월 이후, 교육부에서 권장해 오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일선 학교에서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잘 모르겠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9.'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학교 급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10.'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영역의 수업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듣기 ②말하기 ③읽기 ④쓰기

※ 다음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 중 하나에만 √표 해주십시오.)

(교사 변인)
11. 타 교과에 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해야한다는 것은 영어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기계발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외 연수 기회의 대폭 확대
② 영어교사 자기 계발 스터디 활동 지원
③ 영어 진행 수업 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

④ 근평이나 교원평가 등에서의 이점 제공
⑤ 영어교사 1인당 영어과 시수 축소와 업무 경감
⑥ 영어과 부장 및 영어과 전담 장학사 배치

12.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외 장기 연수 (1년 이상) ② 해외 단기 연수 (1-2개월)
③ 국내 합숙 연수 ④ 국내 비 합숙 연수 (방학 활용)
⑤ 퇴근 후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한 학기 중 연수
⑥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휴직 지원 및 허용
⑦기타:_____

(학생 및 사회적 변인)
13.'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입시제도의 개선 ② 영어 국가 공용어 지정
③ 학교 내신에서의 말하기.쓰기 평가 확대 ④ 취업 시 의사소통 능력 반영

(학교 변인)
14.'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사 1인당 영어과 수업시수 축소와 업무 경감
② 영어전용교실 및 각종 IT 자료 지원 ③ 신규 영어교사 증원
④ 영어 전용교사 제도 도입 ⑤ 원어민 보조 교사 확충

※ 기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임병빈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 850-8189
Email: rainbow@kongju.ac.kr

전영주
대전과학고등학교
305-33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과학로 30
Tel: (042) 863-7476
Email: ipeuni2@hanmail.net

Received in January, 2009
Reviewed in February,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ch, 2009